

# 롤즈 정의론의 평등주의적 측면

李 仁 鑄

## 목 차

- |                   |               |
|-------------------|---------------|
| 1. 서 론            | 4. 정의 원칙의 평등성 |
| 2. 칸트적 인격 개념의 평등성 | 5. 좌·우에서 비판   |
| 3. 원초적 입장의 평등성    | 6. 결 어        |

## 1. 서 론

이 글의 목적은 롤즈 정의론의 평등주의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데 있다. 1971년에 나온 *A Theory of Justice* 이후의 몇 논문에서<sup>1)</sup> 롤즈는 칸트적 인격 개념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의론을 보강한다.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자율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이상은 하나의 규범적 전제로서 작용하며 그의 정의론의 핵심 개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칸트적 인격 개념은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평등성에 대한 깊은 믿음에 기초해 있다. 또 하나 그의 정의론의 기본 전제는 인간의 자연적 자산(natural assets)의 차이는 도덕적 판점에서 볼 때 자의적(arbitrary)이며 이에 의거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무화(nullify)되어야 한다는 강한 평등주의적 믿음이다. 이 믿음을 기반으로 원초적 입장에 장치된 무지의 베일이라는 방법론적 도구가 정당화되며 기회 균등 원칙, 차등원칙이라는 평등주의적 정의 원칙이 지지될 수 있게 된다.

롤즈의 정의론은 가치 중립적인 사회 계약론적 방법에 의해 연역적으로 유도되는게 아니다. 오히려 원초적 입장에 부과된 규제요소들 — 특히 무지의 베일이나 계약 당사자간의 평등성, 대칭성, 동등한 발언권의 보장등 — 은 칸트적 인간관의 이상(ideal)이 이론의 뿌리에 있음으로 해서 그 타당성이 보장된다.

이하에서 칸트적 인격 개념과 자연적 자산의 도덕적 자의성이라는 신념을 중심으로 롤

T.J. = *A Theory of Justice*, J. Rawls, 1971.

K.C. = "Kantian Constructivism in Moral Theory: The Dewey Lectures 1980," J. Rawls, 1980.

1) J Rawls, "A Well-Ordered Society" in *Philosophy, Politics and Society* 5th Series, 1979.  
,"Kantian Constructivism in Moral Theory: The Dewey Lectures 1980," *The Journal of Philosophy* 77, 1980.  
,"Social Unity and Primary Goods" in *Utilitarianism and Beyond*, ed, by A.K. Sen, 1982.

즈 정의론의 평등주의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적 보수주의 양측에서의 비판을 간략히 검토해 보겠다.

## 2. 칸트적 인격 개념의 평등성

롤즈는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체라는 칸트적인 인간관을 자기 정의론의 핵심 개념으로 삼는다. 그는 1980년에 발표한 그의 논문 *Kantian Constructivism in Moral Theory*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구성하는 3가지 모델 개념을 설정한다.<sup>2)</sup> 도덕적 인격체(moral person), 원초적 입장, 정의 원칙이 그것이다. 여기서 중심역할을 하는 것은 도덕적 인격체 개념이다. 원초적 입장에 부과된 조건들은 이 본성에 부합하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다. 또 정의 원칙도 이 인격체의 자유롭고 평등한 본성을 표현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원초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의 원칙에 대한 합의는 애초부터 그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원초적 입장에서의 계약은 도덕적 인격체와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를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적 기능만을 수행하며(K.C. p.520) 사고의 진행과정을 시각화시켜주는 데에 그 역할이 제한된다.

칸트의 철학 체계가 본체계와 현상계, 자유와 필연의 영역을 나누는 2원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고 할 때 칸트의 인간은 인과적 필연성에 구속된 자연적 질서의 영역을 벗어난 본체적 존재(noumenal being)로서 심리적 상태의 담지자인 심리학적 자아나 신체적 자아가 아닌 존엄성, 자율성을 지닌 평등한 존재이고 목적의 왕국의 입법자이다. 이 목적의 왕국의 롤즈식 변형판이 정의 원칙이 실현된 질서정연한 사회이다. 이 이상적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체로 생각한다. 자율성의 주체로서의 서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바로 롤즈가 생각하는 칸트적 인간의 모형이다. 그러나 롤즈가 제시하는 칸트적 인간개념은 문자 그대로의 칸트와의 동일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비적 표현(analogy)에 불과하다.(K.C. p.517) 롤즈는 칸트의 도덕 개념의 2원론이 경험적 이론의 한계 내에서 재해석, 재구성될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하면서<sup>3)</sup> 칸트적 인간관을 경험적 토대와의 관련성 하에서 재구성한다.<sup>4)</sup>

칸트적 인간이 도덕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정의감(sense of justice)과 선 개념(conception of the good, 가치관)에의 능력을 지닌 주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한다. 즉 그들은 자신이 합의한 정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고 또 준수하려 의욕하며 좋고 나쁨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뜻한다. 또 그들이 자유롭다는 것은 그들은 선행하는 규제 없이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주체적인 주장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self-originating source of claims)이며 어떤 특정한 가치관에 일생동안 얹매이지 않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시는 자신의 선 개념을 고치고 변형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뜻한다. 이

2) J. Rawls, "A Kantian Constructivism in Moral Theory; The Dewey Lectures 1980," p. 520.

3) J. Rawls, "A Well-Ordered Society," p.18.

4) 칸트 윤리학이 기독교 윤리의 세속화된 표현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롤즈의 인격 개념은 칸트의 형이상학적 초월적 인격 개념에 대한 세속적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유라는 특성은 도덕적 존재로서의 선 개념에의 능력이 반영된 것이다. 또 이들은 모두가 똑같이 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이다. 즉 정의 원칙을 존중하고 사회협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정의감의 능력을 평등하게 공유하고 있는 점에서 그들은 평등한 존재이다. 이 평등성은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정의감의 능력이 반영된 것이다.

결국 이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존재로서 평등한 가치, 존엄성을 갖게 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기본 구조를 지배하는 정의 원칙에 합의하는 장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정의감에의 능력, 선 개념에의 능력은 물론 자연적 특성이다. 어떠한 자연적 특성도 인간은 평등하게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서 이 자연적 특성의 측면에서의 평등성이 보장되는가? 인간 존엄성의 형이상학적 평등성을 전제하면 문제의 해결이 쉬워질 수 있으나 톨즈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영역적 특성(*range property*)이라는 개념을 고안해서 사용한다. (T. J. p.508) 원 안의 모든 점들이 원이라는 영역 안에 있는 특성이라는 점에서 똑같고 더 원 안에 있다든지 멀 원 안에 있다든지 하는 식의 구별이 없듯이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특성의 최소한의 소유만으로도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평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기에 충분한 것이다. 톨즈는 이 최소한의 도덕적 능력만이 유일한 기준이 된다 하였다. (K. C. p.529) 최소한의 능력 이상의 탁월성은 선도 악도 아닌 도덕적으로 우연적인 것에 불과하다.

톨즈는 이와 같이 질서 정연한 사회의 성원, 원초적 입장의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간은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평등한 존엄성을 갖게 된다. 톨즈 자신도 거의 대다수의 인간(overwhelming majority of mankind, T. J. p.506)이 이러한 도덕적 능력을 소유한다고 전제한다. 이 영역적 특성 개념은 그 의도에서 자격 미달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두를 평등한 존재로서 포용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러나 Galston이 지적했듯이<sup>5)</sup> 평등주의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개념이 도덕적 인격에의 기준요건을 낮게 정함으로써 이미 평등주의를 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서 생각될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톨즈가 말하는 도덕적 능력이 자연적 특성인 이상 아무리 그 기준을 낮게 잡아도 불가피하게 제외되는 소수가 생긴다는 점이다. 선천적 백지나 무능력자의 평등한 권리와 존엄성이 고려받지 못하게 된다는 게 그것이다.

그러나 톨즈는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최소한의 능력이 실현된 상태가 아니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능력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잠재능력을 갖고 있으되 도덕적으로 자의적 인 자연적 사회적 우연사에 의해 이를 실현못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도 도덕적 인격체로서

5) W.A. Galston, *Justice and the Human Good*, 1980, p.156.

의 평등한 자격을 갖게 된다. 결국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간은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평등성을 확보할 수 있다.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인간은 자유의 측면(선 개념 형성, 수정능력)에서도 똑같고 정의감에의 능력에서도 똑같으므로 톨즈의 인간은 평등성의 구현자로서의 인간이다.

### 3. 원초적 입장의 평등성

정의 원칙을 결정할 계약의 상황인 원초적 입장 속의 인간은 도덕적 이상으로서의 인간이 아닌 이론의 구성을 위해 고안된, 원초적 입장의 규제조건 하에 놓인 가공적 인간이다. 그러나 그들은 도덕적 인격체의 계약 대리인 (혹은 본인 자신이 계약주체)인 점에서 도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무지의 베일에 의하여 자신의 고유명사를 모르는 그들은 도덕적 인격체로서 평등한 존재이다. 그들은 정의감에의 능력과 선 개념을 형성, 수정할 수 있는 똑같은 도덕적 능력을 지니고 있고 이것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최상급의 관심 (highest-order interest, K. C. p.548)을 가진다. 그들이 자유, 기회, 소득과 같은 기본적 재화를 추구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게 될 어떤 구체적 인생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도덕적 능력을 실현하려는 가장 높은 관심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서 추구한다. 즉 기본적 재화는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특성을 실현키 위해 필요한 것이지 경험적, 우연적으로 가지게 될 특정 인생목적을 실현키 위해 필요한 재화가 아니다. 계약 당사자는 이기적 동기를 가진 합리적 계산자가 아니고 도덕적 인격체의 대리인으로서 도덕적 동기를 갖게 된다.

여하튼 이 도덕적 인격체들은 평등한 존재로서의 자격을 지니고 계약에 임하게 된다. 이들의 평등성을 더욱 확고하게 보장해주는 장치는 원초적 계약 상황에 부과한 조건들이다. 우선 무지의 베일은 각 인격체 사이의 우연적 차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합의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그들의 능력, 가치관의 내용, 사회에서의 위치 등에 차이는 도덕적으로 우연적, 자의적이고 이것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게 톨즈의 생각이다. 결국 이러한 우연적 요소가 배제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본질적 측면만 지닌 평등한 존재로서 나타난다. 자연적, 사회적 우연사에 의해 이익이나 불이익을 보지 않는 평등한 존재로서의 그들은 평등하고 공정한 상황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무지의 베일은 계약자 사이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장치인 것이다.

또 원초적 입장은 순수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 (K. C. p.523) 여기에는 선행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고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라는 절차의 결과 나타난 결론이 정의의 원칙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이 점 역시 계약 당사자의 평등한 자율성(자유)이 반영되어 있는 측면이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K. C. p.550) 계약 당사자로서의 유일한 자격요건은 최소한의 도덕적 능력의 소유 여부이고, 합의의 과

정에서 그들은 모두 동일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계약 요소들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칸트적 인격의 이상이 반영된 가치 담지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자신의 도덕적 본성을 실현하려는 고차적 동기를 가지고 있고, 또 원초적 입장이라는 계약의 상황은 이들의 평등한 도덕적 본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합의할 정의의 원칙도 이러한 평등성을 구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 4. 정의 원칙의 평등성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정의 원칙은 평등한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의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평등)의 원칙,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 수해자의 이익이 될 경우에만 허용하는 차등 원칙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T. J. p.302) 각 부분은 순서대로 절대적 우선성의 서열이 매겨져 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기회 균등의 원칙, 차등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자존감(self-respect, self-esteem)과 관련하여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검토해 보자. 톨즈는 모든 기본적 재화중 자존감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 보면서(T. J. p.440, 340, 107) 이것의 평등한 분배를 요구한다. (T. J. pp.440-2) 이 자존감은 인간이 자신의 가치, 선 개념, 인생계획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확신이며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다. 이것이 없다면 삶은 무의미해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다. 즉 자존감은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자기 존재가치에 대한 확신이며, 이것이 불평등하게 되면 인간의 도덕적 가치의 평등성에 치명적 손상이 가해지는 셈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존감이 훼손됐을 경우 손해봤다는 의식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톨즈는 정의는 자존감의 평등성을 요구한다고 하면서(T. J. p.101) 이 자존감의 평등성을 보장해줄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K. C. p.526, 531)

이 자기 존중감이나 자기확신의 기반은 사회, 경제적 이득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다. 자유만이 이것을 보장해준다. (T. J. p.545) 자유를 상실한 노예가 자존감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 점은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재화는 유한하나 자유는 모두에게 충분히 그리고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무한한 재화이다. 이리하여 톨즈는 모두에게 똑같은 자유에의 똑같은 권리를 줌으로써 똑같은 자존감을 보장하는 정의의 제1 원칙에 절대적 우선성을 부여한다. 자존감의 기반인 평등한 자유의 실현에 최우선 순위를 할당한 것은 톨즈의 평등주의적 인간관을 반영한 것이다. Dworkin은 톨즈의 심층이론은 자존감에의 평등한 자연적 권리에 대한 가정이라고 말하면서 이 평등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관심 때문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선택되었다고 정확히 지적한다.<sup>6)</sup> 이와 같

6) R.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1979, p.182.

이 정의의 제1원칙은 인간의 근원적 평등성을 잘 반영하는 원칙이다.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정의의 제2원칙이다. 이는 기회를 모두에게 공정하게 그리고 똑같이 개방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적, 자연적 조건에서 유래한 개인들의 모든 차이는 도덕적으로 자의적, 우연적이고 교정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평등주의적 신념을 가진 룰즈에 있어 기회균등의 원칙은 강하게 평등주의적으로 해석된다. 룰즈에 있어 기회균등은 형식적 의미로 이해될 수 없다. (T. J. pp. 72~3) 형식적 기회균등은 각자가 방해받지 않고 유리한 위치를 향하여 경쟁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줄 뿐이다. 이것은 80세의 노인과 20세의 청년에게 달리기를 시키는 것과 같은 양육강식의 논리를 허용한다. 노인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막지는 않으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형식적 기회균등은 동일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자가 동일한 인생전망을 가질 수 있는 조건만 마련해준다. 여기서는 자연적 우연사(재능, 능력)와 사회적 우연사(출신 계급)가 이미 승패를 결정하고 있다. 룰즈는 개인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성격조차도 그의 가정환경, 사회적 환경에 의해 지배된다고 본다. (T. J. p. 73)

출발점에서부터의 차이라는 이와같은 우연사가 개인의 인생전망을 결정하는 것을 룰즈는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회균등의 원칙은 도덕적 인격체로서 인간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하며 자연적, 사회적 우연사가 그의 인생전망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요구하는 실질적 기회균등 원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인간의 성격마저 가족적 배경이라는 자의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러한 영향을 배제해야 한다는 기회균등원칙의 이념에 따르면 가족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룰즈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 원칙이 실현된 상황에서는 기회균등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가족제도를 폐지해야만 하는 절박성이 줄어든다고 말하면서 극단적 결론까지 요구하는 철저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T. J. p. 511) 평등한 자유가 보장되고 사회 경제적 차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할 때 우리가 월등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한 점에 대해 기죽을 필요가 없다고 그는 덧붙이고 있다. (T. J. p. 512)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는 인간의 인생전망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우연적 차이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되고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신념이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다.

차등 원칙 역시 평등주의적 정의개념이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여전에 놓인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될 경우에만 허용된다. 결국 룰즈의 정의 원칙중 차등원칙만이 유일하게 불평등을 허용하나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엄격한 산술적 평등을 택하겠다는 그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차등원칙은 평등주의적 이념을 구현한 것이라 해석된다.

사회적, 경제적 기본 재화에 대한 분배문제에서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는 평등한 분배를 요구하는 원칙으로 수렴된다. 평등한 발언권을 가진 합리적 계약 당사자가 남보다

적은 분배로에 만족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하여 사회적, 경제적 재화의 분배에 대한 최초의 합의는 엄격한 평등분배를 요구한다. (T. J. p.80) 그러나 최초의 평등한 분배상태 보다 더 유리한 분배방식이 있다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지않은 (T. J. p.538) 계약 당사자의 합리성은 그것을 택하게 유도한다. 소득, 부, 권력 같은 사회 경제적 재화는 인간의 평등한 자존감(존엄성)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므로 엄격한 수학적 평등성보다는 불평등을 허용함으로써 모두에게(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선택의 대상이 된다. 이 불평등은 더욱 나은 입장에 있는 자(즉 유능한 자)에게 더 많은 봉사를 허용해줌으로써 유인(incentive)으로서 작용하며 이 유인은 그들로 하여금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자를 비롯한 모두의 이득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만든다. 이 불평등은 유인으로서의 측면도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노력과 비용에 대한 보상, 그 능력을 최소 수혜자를 위하여 사용한데 대한 보상으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T. J. p.102)

차등원칙의 평등주의적 성격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롤즈의 숨어있는 심충적 신념을 밝힘으로써 더욱 뚜렷이 드러날 수 있다. 그 신념은 각 개인이 어떤 자연적 자산(능력, 성격, 힘등)을 소유하게된 것은 도덕적으로 자의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에 불과하고, 그들이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서 떳떳이 주장할 자격이 없고(undeserved, T.J, p.100) 그것에서 유래한 불평등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자연적 자산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자산(common asset, T. J. p.101)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암축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적 자산의 차이에서 유래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된 경우, 즉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우연적 사건에서 유래한 모든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는 기반을 못 갖게된다. 더욱 유능한 자의 재능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동소유이고 이 공동재산은 전체(특히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며, 유능한 자가 가지게 되는 더 많은 봉사는 그의 유능성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능하게 하는 미끼에 불과하다.

결국 차등원칙은 자연적, 사회적 우연사에서 유래한 바 자기것이라고 주장할 자격이 없는 차이(undeserved difference)에서 유래한 불평등을 교정(redress, T. J. p.100)하는 평등주의적 성격을 지닌다. 롤즈의 차등원칙은 자연적 자산의 차이를 완전히 제거시키지 않고 그것을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 만듦으로써 평등주의적 이념과 효율성에의 고려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다.

자연적 자산에서 나온 차이를 가질 자격이 없다라는 롤즈의 생각에 대해 Zuckert는 롤즈식으로 자격의 근거(base of desert)를 찾으려한다면 무한소급에 빠지게 된다고 비판한다.<sup>7)</sup> 자기가 가진 자연적 자산을 자기가 소유할 자격이 없다면 한 단계 소급하여 생각할

7) M. Zuckert, "Justice Deserted: A Critique of Rawls' Theory of Justice," Polity, 1980, p.477.  
Galston, "Moral Personality and Liberal Theory: J. Rawls' Dewey, Lecture," Political Theory, 1982, p.507에서 재인용.

때 우리가 도덕적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사실도 우연적 사건에 불과함으로 그와 같이 존재할 자격이 없는 셈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바퀴벌레가 아니라 사람으로 존재하게 된 것, 혹은 수억의 정자중 운이 좋아 수정에 성공하여 탄생하게 된 것 모두 그럴만한 자격이 없게 된다. 자격의 최종적 기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는 물음이 비판의 핵심이다. 물론 이러한 비판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성립될 수 있으나 룰즈의 인간관과 자연적 자산에 대한 그의 생각을 우호적으로 이해한다면 그 비판의 날카로움이 약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5. 좌·우에서 비판

룰즈의 평등주의적 정의관에 대한 비판은 사회주의 이론가 측과 Nozick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보수주의 양측에서 나오고 있다. 사회주의 이론가들의 불만은 룰즈의 정의론이 너무 덜 평등주의라는 것에 있고 Nozick의 불만은 그것이 너무 평등주의적이라는 데에 있다.

Doppelt는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룰즈가 정치의 영역에서는 평등한 권리, 자유, 기회를 보장하지만 경제 영역에서는 차등원칙에 의해 불평등이 허용되고 있다고 비난한다.<sup>8)</sup> 그는 경제적 불평등이 인간의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근본 요인이라고 보면서 룰즈는 자존감의 기반을 단지 부루조아적, 형식적 자유에만 한정시키고 그것을 경제영역에까지 확산시키지 않았다고 말한다.<sup>9)</sup> 룰즈의 이론이 형식적 자유의 측면에서는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여 주지만 경제 영역에서는 물질적 이득, 효율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경제영역에서 허용된 불평등이 인간 존엄성의 평등성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경험적 증거를 대면서 말한다.<sup>10)</sup> 룰즈의 자존감 개념은 시민으로서의 평등한 인간이라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데서 나온 것이며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라는 시야의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이고 있다.<sup>11)</sup> 요컨대 그의 비판의 요체는 룰즈의 정의관이 암암리에 자본주의적인 불평등적 시장경제 체제를 합죽 한다는 것이고, 현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근거로 룰즈를 비판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자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에 대한 고전적 비판의 표적이 착취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한다는 점이라면 룰즈는 어느 곳에서도 착취 경제를 옹호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표적은 빗나가게 된다. 착취란 한 사람의 이득이 다른 사람의 손해를 결과한다는 것을 뜻하는 반면 룰즈가 이상으로 삼는 사회체제는 상호 협동적 체제, 상호 이득(mutual benefit)을 보장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T. J. p.103, 112) 또 자본주의적 시장경

8) G. Doppelt, "Rawls' System of Justice: A Critique from the Left," *Nous*, 1981, Sept.

9) 그는 "자존감의 평등성은 불평등한 경제적 이득과 양립가능하다"(K. C. p. 526)라는 룰즈의 말을 증거로서 인용한다.

10) G. Doppelt, 전개논문, p. 263.

11) G. Doppelt, 전개논문, p. 283.

제체제는 생산 수단을 소유, 상속받았다든지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재능, 능력을 가졌다든가 등의 우연적 사실이 불평등한 소득을 낳게 허용하나 톨즈의 차등원칙은 이러한 우연적 사건이 불평등을 낳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차등원칙에 의한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를 위시한 모든 사람에 의해 합의된, 따라서 정당화된 불평등이며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불만을 갖지 않는 평등주의적 불평등이다. 유리한 자의 더 많은 뜻은 불리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가능하도록 유인하는 미끼로서 이용되었을 뿐이고 누구도 더 많은 경제적 뜻을 받은 자가 도덕적 관점에서 그럴만한 자격이 더 많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T. J. p.536) 이 경제적 차이는 자연적 재능의 차이라는 우연적 사실이 더욱 불리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동의 자산으로서 이용된 것에서 결과했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놓인 자가 스스로 열등한 존재라고 자존심을 상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Nozick은 자연적 자산의 우연적 차이에서 유래한 불평등을 교정하려한 톨즈의 평등주의적 신념이 질투심(envy)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비난한다.<sup>12)</sup> 유리한 자가 10을 받고 불리한 자가 5를 받는 경우와 유리한 자가 8을 받고 불리한 자가 5를 받는 경우를 비교할 때 차등원칙은 부번째 분배방식을 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보다 불리한 자에 대한 기여없는 불평등을 인정 안하는 차등원칙은 질투심이라는 심리적 동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말이다. 어떤 여자가 A, B 두 남자중 용모가 뛰어난 A를 신랑감으로 택한다고 해서 사랑에 실패한 B가 불평할 이유가 없듯이, 더 유능하고 힘센 자가 경쟁의 과정을 통해 더 많은 뜻을 획득하는 데 대해 불평당할 이유가 없고 정당화받아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sup>13)</sup> 마찬가지의 예는 Nozick의 책 *곳곳*에서 나온다.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특효약을 개발한 머리 좋은 의사가 치부를 위하여 이 약에 엄청난 가격을 매겨 판매할 때 이 약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수백만의 사람이 신음하고 죽어가도 이 머리좋은 의사는 하등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Nozick은 주장하고 있다.<sup>14)</sup> 머리가 좋다는 자신의 자연적 자산을 활용하여 그 결과를 고가에 팔겠다는 데 이것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불우한(혹은 무능한) 병자들은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Rawls와 Nozick의 정의관의 근본적 차이는 자연적 자산을 개인의 소유물로 보느냐 공동의 소유물로 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로 압축된다. Nozick은 자신의 표현대로 히스테리칼한 반례와 잘 훈련된 그의 자연적 자산을 활용하여 톨즈를 공박하고 있으나 규범적 입장의 근본적 차이 때문에 의견의 폭은 좁혀들기 힘들 것이다.

또 Nozick은 톨즈의 차등원칙이 질투심을 반영한 것이라 비난하고 있으나 이 질투심이라는 이름이 불은 심리상태가 인간의 평등한 인격을 보장하는 자존감이 훼손당한 데에서 유래한 정당한 반응이라면 충분한 보상과 고려를 받아야 할 것이다. 평등한 상황에 놓인 계약 당사자가 이유없는 불평등에 대해 합의치 않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머리

12) R.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1974, p.215, 229, 240.

13) R. Nozick, *상계서*, pp.237~8.

14) R. Nozick, *상계서*, p. 181.

15) R. Nozick, *상계서*, p. 226.

좋은 의사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칙관적 공감이 Nozick 보다는 틀즈의 평등주의적 입장으로 기우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 6. 결 어

이상 칸트적인 평등적 인격 개념과 자연적 자산의 도덕적 자의성이라는 두 가지 믿음을 토대로 한 틀즈의 평등주의적 정의관을 살펴 보았다. 남는 문제는 이 두 가지 기본 믿음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일이다. 틀즈는 이 작업을 명시적으로 수행한 일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추리를 했을 것이다. 즉 영역적 특성을 소유한 모든 인간은 본질적 측면에서 평등한 존재이고 영역적 특성을 기준 이상으로 소유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등급을 매길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못되는 비본질적, 우연적 사실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우연적, 자의적 차이는 교정(강하게 말하면 제거)되어야 한다는 식의 추리가 그것일 것이나 우연적 차이의 교정(제거)라는 결론은 전제보다 더 강한 평등주의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관계는 엄밀한 논리학 함축관계라기 보다는 그 이념 상 동일 선상에 있지만 독립적, 상보적으로 틀즈의 평등주의를 지지하는 근거로써 기능한다고 해석함이 좋겠다.